

알기 쉬운 양돈전문용어 풀이〈경영편〉



조 광 호
(전남대 농대 교수)

양돈을 하는 목적은 돼지를 사육하여 사람에게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돈인들은 생산비 산출이나 수익 계산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양돈경영시의 생산비 및 수익성 분석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코자 한다.

1. 양돈의 조수익

양돈에서의 조수익은 일정 기간동안 생산한 모든 생산물의 가액을 말한다. 즉 1년동안이면, 그동안 판매한 것 뿐 아니라 판매하지 않은 것, 예컨데 구비·후보돈·기말에 미판매한 비육돈도 전부 포함한다. 여기서 사료공포대 등을 조수익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생산한 것이 아니므로 사료비에서 그만큼을 공제해야 하고, 도태 종돈의 판매액을 조수익에 포함시키려면 종돈의 감가상각비 계산에서 폐기가격을 “0”으로 해야 한다. 또 생산과정중 폐사한 것은 조수익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생산후 폐사, 도난, 화재 등으로 손실을 본 것은 조수익에 포함한다.

2. 경영비

이는 일정 기간동안 양돈경영에 실제 들어간 비용을 말한다. 즉 일정 기간동안 투입된 자돈비(또는 종돈비 이는 감가상각비로 계산), 사료비, 방역위생비, 수도광열비, 제재료비, 소농구비, 수선비, 임차료 및 차입금이자, 건물·시설·대농구의 감가상각비와 기타 잡비 등 물재비와 고용노임을 포함한다.

자돈비, 수선비, 제재료비 등에서 자가생산한 것이거나 자가노동력으로 수선한 것일지라도 시장가격에 준하여 계산해야 한다. 또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으로 직선법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1\text{년간의 감가상각비} = \frac{\text{구입가격} - \text{폐기가격}}{\text{내용년수}}$$

3. 생산비

이는 통상 단위당 투입된 총 비용, 즉 단위당 생산비를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비육돈 1kg 생산비, 규격돈 1두당 생산비 등을 계산하여 시장가격과 비교할 때 이용한다.

양돈에서의 생산비는 경영비에다 실제 지불하지는 않으나,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자가노동에 대한 비용, 자기 소유의 고정자본 및 유동자본에 대한 용역비(이자)와 자기 토지에 대한 용역비(이자 또는 지대)를 포함한다.

일정 기간동안 투입된 생산비를 그 기간동안 생산된 생산량으로 나누면 단위당 생산비를 산출할 수 있다. 여기서 자가노동력에 대한 비용은 경영주와 그 가족이 양돈에 투입한 노동력에 대한 비용으로, 양돈에 투입하지 않았으면 인근에서 벌어 들일 수 있는 것을 포기한 만큼을 비용으로 산출하며, 통상 인근 노임에 준한다.

고정자본 용역비는 양돈에 투입된 고정자본 총액에 이자율(연 10~12%)을 곱하여 산출한다. 또 유동자본 용역비는 양돈에 투입된 유동자본

(사료비, 자돈비, 소농구비, 방역위생비, 수도광열비, 제재료비, 수선비와 고용노임 등)에 이자율을 곱한후 다시 1/2을 곱하고(이는 기초와 말에 투입된 것을 고려한 것임), 다시 기간중 회전율(통상 비육돈은 2.0~2.4회전)로 나누어 산출한다.

토지용역비는 양돈에 사용된 토지(돈사부지 및 운동장 등)의 가액에 이자율(통산 연 5%를 적용하며, 이는 지가 상승분을 상쇄하기 위함)을 곱하여 산출하거나, 인근 비슷한 토지에 대한 임대료에 준하여 계산한다.

4. 양돈소득, 순수익(이윤)

양돈에서의 소득은 조수익에서 경영비를 뺀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이윤과 자가노동에 대한 보수, 자기토지 및 자기자본에 대한 용역비가 포함된다.

$$\ast \text{양돈소득} = \text{양돈조수익} - \text{양돈경영비}$$

한편, 양돈에서의 이윤(순수익)은 조수익에서 생산비를 뺀 것을 말하며, 장기에서는 적정이윤이 보장되어야 생산을 계속할 수 있다.

$$\ast \text{양돈이윤(순수익)} = \text{양돈조수익} - \text{양돈생산비}$$

소득율은 소득이 조수익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순수익율은 순수익이 조수익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ast \text{소득율} = \frac{\text{소득}}{\text{조수익}} \times 100$$

$$\ast \text{순수익율} = \frac{\text{순수익}}{\text{조수익}} \times 100$$

5. 자본회전율

양돈에 투입된 자본이 회전하는 회수, 즉 자본의 활동력을 검토하는 지표이다. 총자본회전율은 연간 조수익을 총 투입될 자본으로 나눔으로써 산출된다. 이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영이 활발히 운영된다는 것을 뜻한다.

$$\ast \text{총자본회전율} = \frac{\text{연간 조수익}}{\text{총투입자본}} \times 100$$

6. 자본수익률

양돈경영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그 이익을 얻기 위해 투하된 자본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자본수익률이 있다. 자본수익률에는 총자본수익률과 자기자본수익률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좋다. 총자본수익률은 연간 수익과 총투입자본과의 비율이며, 연간 수익에는 연간 순수익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합한 것이다. 총투입자본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합한 것으로, 양돈에 투입된 총자본이 1년간에 어느 만큼의 수익을 올렸는가 하는 경영 전체의 수익력을 나타낸다.

$$\ast \text{총자본수익율} = \frac{\text{연간순수익} + \text{차입금이자}}{\text{총투입자본}} \times 100$$

자기자본수익률은 연간 순수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ast \text{자기자본수익율} = \frac{\text{연간 순수익}}{\text{자기자본 투입액}} \times 100$$

차입금의 평균 이자율과 총자본수익율을 비교하여, 차입금 이자율이 높다면 총자본의 수익능력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자기자본수익율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

7. 비육돈의 적정 출하체중 결정

수익이 최대가 되는 자원의 투입 수준은 한계비용이 한계수익과 일치할 때이다. 즉 추가적으로 투입한 비용과 추가적인 투입으로 인해 증가된 수익이 일치할 때를 말한다. 따라서 농가에서 쉽게 적정 출하체중을 결정하는 방법은 일정기간(예컨대 1일) 동안 투입된 비용보다 그 기간동안 증가된 수익이 많으면 더 사육하고, 같으면 증체를 그만두고 출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당시의 사료가격과 비육돈 가격 그리고 일당증체량과 사료요구율을 알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